

민족의 대경사, 강산을 진감하는 환호성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하였다.

온 나라의 련일 명절 분위기에 휩싸이고 끝없는 기쁨과 환희가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그이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오직 원수님만을 따라 끝까지 자주주의 길, 선군적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최세의 결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령도하시는 기간에 보통의 정치가나 수년, 수십년을 이어가면서도 이룰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악과 같은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

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밀려오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극상을 당한 피눈물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살해하려고 때를 만만듯이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대세력의 온갖 어리석은 망상은 또 한번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산산히 부서졌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자위의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으로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판문점과 장재도, 무도영웅방이대를 비롯한 최대열점지역들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신시찰은 침략세력이 사회주의조선을 감히 넘겨다보며 애써보려고 달려든다면 단호히 요정대비열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억센 기상을 내외에 시위하였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그이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하는 군사

적지략에 놀라움을 숨기지 않으며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르치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과 정으로 온 나라에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화원을 펼쳐주시어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창건거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교육자가장, 노동자가장, 신혼부부가정을 방문하시어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아이들과 한 악수를 지켜 행복의 요람들을 거둬 찾으시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와 체육경기도 관람하시는 원수님의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속에서 이 땅의 날과 달이 흘렀다. 그이의 날지지도창정에 펼쳐진 이런 가슴뜨거운 혼연일체의 화폭들은 사랑과 정과 의리로 융합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백배해주었고 세계를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

고 세련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눈부신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었다.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져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장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수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도처에 솟아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방사업을 쉽게 틀어쥘수 있으며 그이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있다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사론적예지에서도 으뜸이시고 령도적수완과 령도방법에서도 최고이시며 담력과 배짱에서도 최고이시다. 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이르기까지 환히

재 룡고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실력은 온 세상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을 령도해오신 나날에 사람들은 그이의 출중한 위인상, 뛰어난 정치실력과 명장의 인품에 반했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 때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로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체제와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을 확신성있게 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긍지를 안고 그이의 령도따라 더 기세차게 신심드높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우렁찬 환호성은 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리용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만발하는 꽃으로

봄이 왔다. 화창한 봄날이 향긋한 기운을 풍기면서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찾아왔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올해에는 류달리도 빨리 불어와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누구나 기쁨에 넘쳐, 환희에 넘쳐 자원이 주는 이 크나큰 혜택을 한껏 감상하고있다.

만발한 꽃의 세계, 해마다 이 땅에 봄은 오고 꽃은 피지만 올해의 봄은 어이하러 남다른 감흥을 안겨주며 찾아온것인가.

아름다운 저 꽃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꿈과 리상을 한껏 더 부풀게 하여주는 화창한 봄의 정서이다.

꿈과 리상,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범한 생활속에서 누구도 예상

누구나 행복감과 환희에 젖어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더 아름답되길 매일을 그려보며 가슴이 벅차도록 꿈을 이야기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만 농고보아도 얼마나 많은 꿈과 리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는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은하과학자거리와 집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긍지로 자랑높고 끝없이 번영하고 행복할 미래의 축도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부른다.

나날이 변모하고 흥하는 현실을 보며 이 땅의 남로소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하고 인민의 만발이 꽃피날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이 아니라는것을 가슴뿌듯이 체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실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은정과학지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위성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있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루가 다르게 차고있다.

동평양지구에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현대적인 상업거리가 일떠서고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새로운 12년제 무로의 무교육강령이

올해의 새 학기부터 시행되게 되어 뜻깊은 이 4월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있다.

력사의 기적은 민족의 천만년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실력, 강철의 의지를 지닌 결출한 령도자만이 안아올수 있다.

절세의 위인, 창조의 거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따라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워지는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 온 나라 인민이 세상부러운것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회주의대화원을 이 땅위에 일떠세우실 숭고한 꿈을 안으시고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걸고계신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만복이 꽃피는 인민의 세상을 현실로 펼칠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누구나 환희에 넘쳐 봄의 정서를 마음껏 즐기는 이 4월, 위대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욱더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자주통일의 그날을 기어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더 그리워지는 어버이수령님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환생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었으며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애국애족의 빛나는 생이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 통일문제가 천궐을 날기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다.

태양절을 앞두고 전체 공화국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속에 사상과 품도, 령도와 인덕에서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서인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

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며 조국통일과 민족민족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뜻깊은 사변이다.

민족의 대경사속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전체 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하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궐을 기어이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와 신심에 충만되어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모두 현실로 꽃피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도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원 경 일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

태양절을 맞은 지금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과 교인들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애국의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어진다. 그이께서는 불멸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장도 겨레에게 안겨주시었고 숭고한 민족애와 바다같이 넓은 도량으로 온 겨레를 품에 안아주시고 조국통일의 주제로 내세워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일군들도 몸소 만나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배려

를 다 돌려주시었다. 정녕 그 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안아주는 통일애국의 품이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서인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얼마전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여 민족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 겨레는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건설해나갈수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노력해갈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 영 철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 사진전시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판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가 3월 30일 협회청사에서 사진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해외동포들을 접견해주시는 사진문헌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서명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고 경제부문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

여있었다.

주영일 협회회장과 고대춘부회장, 《통일》신문주필,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주영일회장이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진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마음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쳐

*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

지금 평양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4월의 봄과 더불어 열여섯 번째 년료를 새기며 성황리에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2만 3 000여명의 태양의 꽃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축전장에는 민족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모셔져있다.

꽃축전장에는 공화국의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다해 피운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주요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일조문화의회》 대표 가메다 노보루,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나다 다카시, 한일혁명렬사 장용화가족일행, 중국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지성이 어린 김일성화들도 있다.

김일성화축전장에서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시회였다.

전시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경모의 정이 어린 600여상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들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전체 선진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을 담아 전시대부분에는 통일친필비를, 아래의 기본들에는 김일성화로 조성지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전시대들에는 주석을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

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호모와 정송의 마음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화단을 형성하고있다.

전시대의 맨 앞부분에 형성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평명정대한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분불유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겨레의 어버이, 통일의 구성자이다.

국제고통련위원장 석명손, 범민련독립국가협동체지역의장 조운해, 우즈베끼스판 고통련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끼스판고통련 부위원장 고대춘, 국제고통련기관지 신문 《통일》주필 석미란, 국제고통련 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미숙과 가수 남별동포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즈베끼스판, 로씨야에서 사

는 해외동포들의 지성이 어린 한물기한물기의 태양의 꽃을 보면서 우리는 지역만리에서도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사는 그들의 끝없는 경모심과 아울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그 길에서 애국충정을 다해가는 애국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축전장에서 만난 재중동포 김정심은 오늘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고 조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인류의 다함없는 청송과 흠모를 받으시는 절세위인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다고,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며 민족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을 해외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갔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천송이 만송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위인칭송의 태양찬가여 끝없이 울려퍼지라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취주악단의 경쾌한 주악에 맞추어 부채춤, 장고춤, 교예 등이 이채롭게 펼쳐져 개막식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가자들에게 꽃송이를 안겨주는 속에 이번 축전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이 소개되었다.

개막식에는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장 김용진내각부총리, 차희렬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장인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에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요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



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수령님》의 은은한 노래선율속에 우리 예술인들은 청송과 흠모를 받으시는 절세위인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다고,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며 민족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을 해외에서 더욱 힘차게 벌려나갔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천송이 만송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 풍기는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는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월남국립가무극장예술단의 남성3중창 조선노래 《충성의 노래》→몽골전군협주단의 녀성독창과 남성소합창 조선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



우크라이나 끼예브무도극장무용단의 군무 《축배를 들자》



중국예술단(산동성교예단)의 《발재주》